

완도 수산물 가정간편식, 1300만 불 수출 협약 쾌거

미국·태국·프랑스와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중 단일 행사 최대 실적

완도군은 최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완도 수산물 가정간편식(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 73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미국, 태국, 프랑스 등 3개국과 수출 협약 7건, 1300만 불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완도군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중 단일 행사 최대 추진 실적이다.

완도 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장기적 대유행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부진, 해외 인적 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

도모 및 수산물 해외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한 HMR 수출상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와 완도군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수출상담회에는 완도군 수출 기업 총 14곳이 참가하였으며, 9개국 19명의 식품 바이어가 초청됐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누리영여조합법인, 다시마전복수산

영여조합법인, ㈜완도사랑S&F, 완도전복주식회사, 해미원영여조합법인, 스마일아일랜드, (우)완도세계로수산, 완도바다해맑은, 해청정, ㈜흥일식품, 완도바다식품, ㈜해림후쿠이단,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해성인터내셔널 등이다.

참가 업체는 전복차우더, 전복간장비빔, 전복숙회, 완도전복키트, 해조류건강보조식품, 넙치 어죽, 전복공피 등 다양한 HMR 제품을 선보였다.

수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올타리USA-완도군(500만 불), 미국 퍼시픽아이언트-완도전복주식회사, 해성인터내셔널, 세계로수산, 완도바다해맑은(총 500만 불), 태국 지두방-완도다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200만 불), 프랑스 리엔코-완도바다식품(100만 불)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 이후에도 판촉전 등 다양한 후속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8월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완도군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장흥 대덕 지사협, 농촌 어르신 특화사업 추진

장흥군 대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대덕읍여자자율방범대와 어르신 청춘 회복 '호박꽃도 꽃이란다'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대덕읍여자자율방범대 회원 5명이 참석해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상호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 청춘 회복 '호박꽃도 꽃이란다'는 농한기 어르신들의 지친 피부와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기획된 대덕읍 특화 프로그램으로 기부활동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양 대덕읍여자자율방범대장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참 기쁘다"며 "회원과들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섬기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청정 강진 '으뜸마을 만들기' 출항

출범식을 갖고 주민 주도 45개 마을 경관가꾸기 사업 시작



강진군은 지난 28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지정서 전달 및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주민 주도형 경관가

꾸기 사업에 착수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강진군 45개 마을 대표

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지정서 전달 이후 마을 대표들은 '깨끗한 강진,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자는 플래카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전라남도의 시책으로 도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강진군은 45개 마을이 선정됐다.

군은 각 마을별로 3년간 도비 36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영농스레키 수거, 마을 꽃밭조성, 경관개선 등 마을 경관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으뜸마을 사업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면 지방자치에 걸맞은 으뜸 강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찾아가는 인형극 뮤지컬 어린이 흡연예방 교육 진행 '호응'

진도군 보건소가 '어린이 흡연예방'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역의 10개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한 흡연예방교육을 최근 큰 호응 속에 진행했다.

지난 4월 초순부터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공연한 이번 인형극은 아이들과 친숙한 동물을 등장시켜 쌍방향 대화방식으로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렸다.

특히 이번 인형극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하고 조기교육을 통한 흡연 방지와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인형극 전문극단인 '아톰'의 진행으로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호랑이와 토끼, 돼지의 이야기로 인형극을 즐기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해 공연내 어린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다.

진도군 보건소는 흡연예방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이 하여금 담배의 해로움을 깨닫고 더 나아가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금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유아기는 예방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때인 만큼 아이들과 친숙한 동물을 활용해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용 인형극을 마련해 흥미를 느끼도록 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K-water 장흥수도관리단 장흥 장평면 초·중·고 학생들에 희망 전달

장흥군 장평면은 지난 28일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관리단(단장 정한상)에서 장평면 초·중·고 학생 10명(초등 5명, 중·고 5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정한상 단장은 "자라나는 새싹 같은 학생들이 올해 희망을 품고 더 나아가는 세상을 꿈꾸기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은 K-water 장흥수도관리단 직원들이 심사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직원 5명은 직접 초등생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학업비가 많이 들기 시작하는 중·고생에게는 2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안병진 장평면장은 "장흥군이 최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가운데 장흥수도관리단에서 아동복지 발전에 앞장서 기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5월을 맞아 장평면에서도 가족의 달 행사(어버이날, 어린이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땅끝 해남에서 탄소중립 가장먼저 실천한다”

해남군은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2050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9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과제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

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친환경 저탄소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전략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 3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조례안 제정, 탄소중립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등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